

 금융감독원		<b>보 도 자 료</b>		금융은  하게 소비자는  하게	
보도	2024.5.13.(월) 조건	배포	2024.5.10.(금)		
담당부서	보험리스크관리국 보험지급여력제도팀	책임자 담당자	국 장 팀 장	이태기 박정현	(02-3145-7240) (02-3145-7244)
'23.12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*					

\* 회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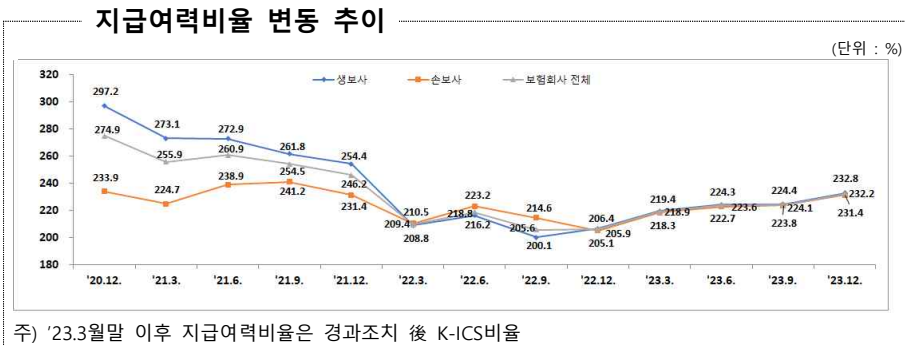
## 1. 현 황

- (경과조치 後) ‘23.12월말 경과조치\*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(K-ICS)\*\*은 232.2%로 전분기(224.1%) 대비 8.1%p 상승

\* 19개 보험회사(생보 12개사, 손보·재보 7개사)가 경과조치 적용 中

\*\* 지급여력비율 = 가용자본 ÷ 요구자본

- 생보사 232.8%(전분기 比 +8.4%p), 손보사 231.4%(전분기 比 +7.6%p)



### <참 고>

#### 경과조치 적용 前 K-ICS 비율

- (경과조치 前) ‘23.12월말 경과조치 적용 前 K-ICS비율은 214.0%로 전분기(201.8%) 대비 12.2%p 상승

- 생보사 208.7%(전분기 比 +12.8%p), 손보사 221.9%(전분기 比 +11.3%p)

## 2. 지급여력비율 변동 주요원인

- (가용자본 ↓) ‘23.12월말 경과조치 後 K-ICS 가용자본은 261.6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0.1조원 감소

- 신계약 유입 등에 따라 조정준비금\*은 증가(+8.0조원)한 반면, 시장금리 하락\*\*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(△6.4조원) 및 결산배당 효과(△3.5조원) 등에 기인

\* K-ICS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(PAP BS)상 순자산과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(SAP BS)상 순자산의 차이 금액

\*\* 국고채10년물 금리 : ‘23.9월말 4.03% → ‘23.12월말 3.18%

- (요구자본 ↓) ‘23.12월말 경과조치 後 K-ICS 요구자본은 112.6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4.1조원 감소

- 주식, 외환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증가(+4.1조원)하였으나, 대량해지위험 산출기준 개선\*에 따른 해지위험\*\* 감소(△17.8조원)로 생명·장기손보리스크가 8.9조원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

\*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(기존 30%)을 보장성(25%)·저축성(35%)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으며, ‘23.12월부터 적용 가능

\*\* 해지율 충격가정에 따른 K-ICS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 감소효과

#### < 지급여력비율 변동 상세 >

(단위: 조원, %, %p)

구 분	경과조치 前			경과조치 後		
	‘23.9월말 (A)	‘23.12월말 (B)	증감 (B-A)	‘23.9월말 (C)	‘23.12월말 (D)	증감 (D-C)
가용자본(조원)	259.4	259.2	△0.2	261.7	261.6	△0.1
요구자본(조원)	128.5	121.1	△7.4	116.8	112.6	△4.1
지급여력비율(% , %p)	201.8	214.0	+12.2	224.1	232.2	+8.1

## 3. 향후 감독방향

- ‘23.12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後 지급여력비율은 232.2%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

- 다만,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

**붙임1**

**보험회사별 지급여력비율 현황**

**[생명보험회사]**

(단위 : %, %p)

회사명	'23.9월말(A)		'23.12월말(B)		증감주 (B-A)
	경과조치 前	경과조치 後	경과조치 前	경과조치 後	
삼성	220.5	-	218.8	-	△1.7
한화	184.3	-	183.8	-	△0.5
교보	183.2	276.6	193.8	265.4	△11.3
농협	167.1	309.9	207.7	363.5	53.6
흥국	112.4	185.6	158.2	220.2	34.6
미래에셋	204.4	-	211.2	-	6.8
신한	209.4	-	250.8	-	41.5
KDB	60.0	128.8	56.7	117.5	△11.3
DB	200.8	399.0	213.9	306.7	△92.2
KB라이프	277.0	-	329.8	-	52.8
IBK	64.3	178.7	80.1	202.3	23.6
DGB	150.5	310.8	162.3	247.0	△63.8
하나	132.5	184.7	122.2	168.7	△15.9
교보플래닛	182.6	313.0	121.6	185.8	△127.2
동양	183.7	-	193.4	-	9.7
메트	282.4	-	336.0	-	53.6
ABL	109.1	168.1	130.0	186.0	17.9
AIA	234.0	-	304.2	-	70.2
푸본현대	5.0	163.8	23.9	192.5	28.7
카디프	205.4	-	189.4	-	△16.0
라이나	317.0	-	336.3	-	19.3
처브	200.1	421.3	214.6	332.3	△89.0
<b>전 체</b>	<b>195.9</b>	<b>224.4</b>	<b>208.7</b>	<b>232.8</b>	<b>8.4</b>

주) 경과조치 미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前, 경과조치 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後 기준 증감

**[손해보험회사]**

(단위 : %, %p)

회사명	'23.9월말(A)		'23.12월말(B)		증감주 (B-A)
	경과조치 前	경과조치 後	경과조치 前	경과조치 後	
삼성	263.3	-	273.0	-	9.7
DB	214.5	-	233.1	-	18.6
현대	172.1	-	173.2	-	1.1
KB	194.0	-	215.9	-	21.9
메리츠	230.8	-	242.2	-	11.4
한화	190.4	283.1	183.3	232.7	△50.4
롯데	148.9	208.4	174.8	213.2	4.8
흥국	160.7	272.3	158.0	229.2	△43.1
농협	226.1	306.0	248.2	316.8	10.8
MG	50.1	64.5	64.0	76.9	12.4
하나손보	160.9	-	153.1	-	△7.8
캐롯손보	172.3	-	281.3	-	109.0
카카오페이	6455.8	-	4777.2	-	△1,678.6
AXA	245.8	297.0	233.5	269.7	△27.2
AIG	280.6	-	246.0	-	△34.5
ACE	304.0	-	262.1	-	△41.9
미쓰이	196.8	-	264.8	-	67.9
알리안츠	184.5	-	191.0	-	6.5
신한EZ	406.8	-	469.4	-	62.6
퍼스트	131.6	-	168.5	-	36.9
코리안리	187.3	-	183.2	-	△4.1
스위스리	168.4	-	171.3	-	2.9
SCOR	137.2	161.9	154.4	176.1	14.2
RGA	200.4	-	200.2	-	△0.1
뮌헨리	164.9	-	225.2	-	60.2
제네럴리	313.1	-	342.8	-	29.7
하노버리	226.3	-	180.9	-	△45.4
동경해상	315.2	-	323.2	-	7.9
퍼시픽리	142.4	-	176.2	-	33.8
팩토리	442.9	-	384.7	-	△58.3
서울보증	408.8	-	437.3	-	28.6
<b>전 체</b>	<b>210.6</b>	<b>223.8</b>	<b>221.9</b>	<b>231.4</b>	<b>7.6</b>

주) 경과조치 미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前, 경과조치 적용 회사는 경과조치 後 기준 증감

**가.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과조치**

- ① 既발행 자본증권에 대한 경과조치(TFI)
  - 제도시행 전 기발행 신종자본증권·후순위채권은 K-ICS기준 상 가용 자본요건 未충족 시에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
- ② K-ICS 업무보고서 및 공시 기한 연장 : '25.12월말
  - K-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1개월 연장 (분기결산 : 3개월 이내, 연결산 : 4개월 이내)

**나.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경과조치: 적용기간 최대 10년**

- ③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(TAC)
    - 시가평가에 따른 자산감소 또는 부채증가 영향(가용자본 감소효과)을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  - ④ 신규도입 보험위험액에 대한 경과조치(TIR)
    - 신규도입 위험(장수·해지·사업비·대재해위험) 측정으로 인한 보험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  - ⑤ 주식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(TER)
    -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주식 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  - ⑥ 금리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(TIRR)
    -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금리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
- ※ 경과조치 관련 세부 내용은 23.3.14.(화) 조간 보도자료 '新지급여력제도(K-ICS) 경과 조치 신고 접수결과, 19개 보험회사가 신청하였습니다' 참고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